

“내란 세력 반드시 심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발족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회의, 선대위 체제로 개편 필요시 선대위 인선 추가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청래 대표를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시종 전 충북지사, 안선하 세계보건기구(WHO) 자문관, 대구 출신 외과의사 금희정 씨, 미안마 출신 귀화 한국인 이본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합류했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이연주·황명선·강득구·이성윤·문정복·박지원·박규환 등 7명의 최고위원, 16명의 광역단체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장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은 배우 이원종 씨, 총괄 선대본부장에는 조승래 사무총장, 대한민국 국가정상화본부장에는 한정에 정책위의장, 오뚝 유세단장에는 박주민 의원 등이 각각 임명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대위는 국민에게 더 가깝고 신속하게 다가가는 현장 밀착형으로 구성했다”며 “일 잘하는

지방 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남은 24일 24시간 내내 낮은 자세로 가장 뜨겁게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선대위원장부터 지역 곳곳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승리를 위한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승리가 간절한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과 극우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 커녕 ‘윤 어게인’ 후보 공천까지 시도했다”며 “내란 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준동할 수 없도록

청산하고 국민 주권 정부의 안정적 국정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매주 월·수·금요일에 여는 최고위원회의를 선대위 체제로 개편해 진행할 예정이다. 공식 첫 회의는 오는 11일 열린다. 아울러 필요시 선대위 인선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 추가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저희들이 내란 극복,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선대위원장을 한 명 더 모시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에게 선대위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완곡하게 여건상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셔서 (안 말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日 다카이치 방한 조율... 셔틀외교 재가동

한일 정상, 중동전쟁 대응 등 논의 오는 19~20일 안동서 회담 유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이달 중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정상은 중동전쟁 공동 대응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로이터통신·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2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장소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이 유력하다. 정부 측이 올해 초부터 안동에서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은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 차원으로 보인다. 셔틀 외교는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교류를 이어가는 외교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를 적극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월 14일 나라현 호류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스1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하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양국이 원유 수입을 중동에 상당 부분 의존

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원유 등 관련 물자 확보에 힘을 합칠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고위당국자들이 지난 7일 서울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 외교·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본은 전체 원유의 93%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원유의 69%를 이 경로로 들여온다.

19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하면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여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가 험악해진 상황이라 핵심광물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 만큼, 경제 안보 협력 의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용외교를 토대로 대중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에 호응하는 일본과 대중 기조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건이다. /서예진 기자 syj@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연석 원내대표가 10일 부산 북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박민식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박 후보 등과 손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박민식 지원 나선 국힘... 한동훈과 대비

지도부·중진 의원들 대거 참석 한동훈 개소식은 지역 주민 중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연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10일 박민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했다. 반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북구 대항 빌딩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박민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식 후보는 “땀방처럼 난데없이 날아온 사람들이 북구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나. 이것은 북구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경상도 말로 알로 보는 것”이라며 “가짜 북구 주민, 북구 주민 호소인과 진짜 북구 주

민,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의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김민수·김재원·조광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권영세·김기현·나경원·안철수·이헌승·조배숙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자리에 함께했고, 부산 지역구 의원인 정동만·박수영·백종현·곽규택·서지영·조승환·주진우 의원도 참석했다.

같은 시간 도보로 10분 가량 떨어진 한동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의원들 대신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당초 한 후보의 개소식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후보가 주민들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박 후보의 개소식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한 후보는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한 명씩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 후보의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와 얼마 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서병수 전 의원(전 북갑 당 협위원)이 함께했다. /서예진 기자

오세훈, 정원오에 재차 양자토론 촉구

“주택 문제 집중 논의하자” ‘서울교통 대전환’ 공약 발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재차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정 후보 측에 촉구한다”며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 좋다. 그쪽에서 원하는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토론하는 것을 동의할 테니 양자 토론을 조속한 시일 내

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서울 시민들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주택 문제”라며 “주택 공급 문제, 주택 가격 안정 문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대출 제한, 세금 증가를 방법론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을 심층 토론함으로써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양 후보의 생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오 후보는 이날 ▲교통 대동맥 연결(지하철 노선 확대)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 ▲기후동행패스 도입 ▲첫차·막차 자율주행 버스 확대 ▲더 센 따릉이 등이 담긴 ‘이동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서울교통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교통 대동맥 연결’은 20조8000억원을 투입해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북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대표 교통 복지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전환해 혜택 범위를 넓힌다.